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의식의 관계연구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학과 학생들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김광수

## 目次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 1.2 연구방법
2. 역사의식
3. 문화와 문화적 정체성
  - 3.1 문화의 정의
  - 3.2 문화적 정체성
4. 경험적 연구
  - 4.1 설문 대상자
  - 4.2 설문지의 구성
5. 설문조사의 결과와 분석
  - 5.1 역사의식의 기초가 되는 설문(설문 10-24)
  - 5.2 역사의식의 발전단계에 따른 설문(설문 25-41)
    - 5.2.1 시간의식(Consciousness of time) (설문 25-28)
    - 5.2.2 변천의식(Consciousness of transition) (설문 29-31)
    - 5.2.3 인과의식(Consciousness of causation(causality, cause and effect)) (설문 32-33)
    - 5.2.4 시대의식(Consciousness of period) (설문 34-37)
    - 5.2.5 발전의식(Consciousness of development) (설문 38-41)
  - 5.3 서술형식의 심화설문(Intensified descriptive question) (설문 42-152)
    - 5.3.1 일반(General) (설문 42-57)
    - 5.3.2 정치(Politics) (설문 58-59)
    - 5.3.3 경제(Economics) (설문 90-94)
    - 5.3.4 사회(Society) (설문 95-104)
    - 5.3.5 문화(Culture) (설문 105-112)
    - 5.3.6 역사(History) (설문 113-147)
    - 5.3.7 교육(Education) (설문 148-152)
6. 결론
  - 6.1 결과와 설명
  - 6.2 제언
    - 6.2.1 역사교육 프로그램
    - 6.2.2 언어정책
    - 6.2.3 문화자각운동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현상으로서 역사의식은 일반적이거나 불변의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특별한 방식의 해석과 경험과정을 통하여 고유한 문화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역사의식은 외부적 역사현실의 내면화(internalisation), 즉, 타집단, 타문화의 가치관, 사상 등을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 의하여 구성된다. 다문화사회·다인종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역사의식을 형성하여 가는 과정으로서 일종의 통과의례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로 남아프리카공화국 학생들의 역사의식의 수준과 성숙도를 살펴보는 것이며, 둘째로 역사의식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고자 함이다. 만약 역사교육이 학생들의 역사의식 수준에 맞추어서 계획되고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은 효과적인 역사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역사의식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역사의식의 함양은 무엇보다도 상실감과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사회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고 고양시킬 것이며 남아프리카공화국 사회의 문화유산에 대해 양양된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역사의식의 고양은 국가건설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1.2 연구방법

이 연구는 두 개의 방법론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이론적인 부분으로서 역사의식의 개념연구(제 2장)와 문화,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문화적 다양성(제 3 장)으로 문헌연구를 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다양한 문화집단들의 역사의식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여 경험적 연구를 하였다.

## 2. 역사의식

“과거는 과거의식과 별개의 개체로서 존재할 수 없다.”<sup>1)</sup> Anthony Kemp의 이 주장은 역사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과거가 실질적인 현실로 되돌아 올 수 없으며 다만 정신의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학자들은 역사의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역사의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의식, 다시 말해, 역사적 자각 또는 역사적 감각, 이란 개념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역사의식”이란 용어는 “역사”와 “의식”의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이다. 역사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istor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의 원래 의미는 호기심

1) A. Kemp, *The estrangement of the past : A study in the origins of modern historical consciousness*, p. vi.

또는 조사, 연구로서, 그 의미가 확장되어 호기심의 결과로 얻은 지식을 뜻한다. “역사”는 여러 가지 원리와 그에 따른 부수적인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다.<sup>2)</sup> 주된 의미는 (1)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 (2) 과거 사건들을 글로 옮긴 이야기 (3) 역사적인 사건들을 연구하고 집필하는 사학자들의 작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역사”는 종종 과거 혹은 상상하고 있는 과거를 생각하는 정신적인 과정과 깊은 연관이 있다. 역사적 사건이라는 개념은 역사의 부수적 의미중 하나이다. 이상적인 철학자들은 표면적인 사건들에 관한 우리의 지식 이상의 실체는 없다고 생각한다.<sup>3)</sup> 역사는 또한 집단적인 기억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사회 정체성과 미래에 관한 조망을 세우면서 쌓는 경험의 창고로 인식되어진다.<sup>4)</sup> Hugo von Hofmannstall이 말하기를, “우리를 포함한 알 수 없는 조상들의 힘을 억누르는 것”, “집단적인 기억이 축적되어 층을 쌓는 것”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작용하여 역사상 거대한 사회 세력으로 행사하는 집단적인 행동에 뿐만 아니라 개인 각자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집단 구성원의 지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역사적 경험이 존재하며, 이것은 국가내에서 대립감과 끊임없는 반목을 일으킨다.<sup>5)</sup> 과거에 실질적으로 발생했던 사건들과 그러한 사건들을 인간의 정신으로 파악한 개념, 그리고 과거에 관한 역사가들의 재해석간에 뚜렷한 연관성이 있다.

Rauche는 역사의식을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 문화적·사회적·정치적 현상에 관한 사건들에 의하여 규정지어지는 한 인간의 현재 사회-정치적 지위라고 일컬었다. 인간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부수적 특징은 시대정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sup>6)</sup>

Rüsen은 역사의식을 정의하기를, “역사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고에 관한 모든 형태를 망라하는 것에 관계된 일반적인 범주이다. 이것을 통해 과거를 경험하고 역사로서 해석한다. 따라서 역사의식에 관한 분석은 개인적 삶과 대중적인 삶 속에서의 역사의 효용과 기능뿐만 아니라 역사적 연구도 포함한다.”<sup>7)</sup> 좁은 의미로, 역사의식은 강한 자의식과 “과학적인 역사학자”의 방법론을 말한다. 또한 역사의식은 인간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의미와 역사적 범주 안에서 현실로서 이해될 수 있다.<sup>8)</sup>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과거는 과거에 관한 의식과 별개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 Marcus에 따르면, 역사는 인간이 경험한 의식과 지각에 관한 시간적 질서와 형태를 표현하는 마음의 현상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일련의 배열 선상에서

2) P. Bagby, *Culture and history : Prolegomena to the comparative study of civilizations*, pp. 24-25.

3) P. Bagby, *Culture and history : Prolegomena to the comparative study of civilizations*, pp. 25-26, 68, 30-31.

4) J. Tosh, *The pursuit of history : Aims, methods and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modern history*, p. 1.

5) T. Schieder, "The role of historical consciousness in political action", *History and Theory*, vol. 17, no.4, 1978, p. 2.

6) G.A. Rauche, "The concept of history", *Historia*, vol. 35, no. 1, May 1990, pp. 14-15.

7) J. Rüsen, *Studies in metahistory*, p. 195.

8) L.W. Gibbs & W.T. Stevenson(eds.), *Myth and the crisis of historical consciousness*, p. vii.

축적된 세계적인 시각의 범위와 인간이 삶을 영위해가면서 형성되는 동일성의 개념을 나타낸다. 역사는 인간이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살아가는 현실 lived realities”로서 존재하는 의식 형태를 다루며, 각각 분리된 관념으로 파악되어질 수 있는 단일 형태가 아닌 마음의 상태로 이해되어지는 즉, 인간이 존재하는 문화적·시간적 조건에 의하여 구체화된 단일 형태와 밀접하다. 그 목적은 인간의 규칙적인 형태와 불규칙적인 형태를 밝히는데 있다.<sup>9)</sup>

위의 내용에서 역사의식은 정신적인 과정의 범주와 연관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식’의 일반적 개념은 의식이란 마음의 자각, 변별상태를 말하는 일종의 심리적 작용이며 자아의 자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知, 情, 意를 포함한 정신형상’으로, ‘감각, 지각, 감정, 정서, 의욕 등의 심적 체험의 일체’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존재, 感官, 생각, 주위환경을 깨닫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느낌, 생각 그리고 행동에서 깨우쳐지는 심리적 내용이라는 뜻이다.<sup>10)</sup>

역사의식은 지혜, 감정, 정의 등의 정신적 현상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자각으로 이해된다. 역사의식은 자기 자신을 역사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만드는 존재의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과정이다.<sup>11)</sup>

R.G. Collingwood는 역사적 사고에 바탕을 둔 역사의식은 자의식이며 독립적 존재(self-existence)를 반영하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sup>12)</sup> 역사의식은 “우리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추구하려는 경험이며 우리가 능동적인 행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역사를 이해하려는 경험”이다.<sup>13)</sup>

역사의식을 통하여 자신을 집단과 결부시킬 수 있다. 역사적 개체성은 보다 광범위한 집단의 기억에 의하여 형성된다. 집단정체성의 필수 요건들과 정당성은 역사는 매체를 통하여 생성된다. 역사적 개체성이란 개념은 더 큰 단위인 인간집단을 통하여 형성되고 자아인식은 단지 더 큰 인간집단이라는 사회환경 안에서 의미를 갖게되는 개인의 인생을 통하여 형성된다고 이해되어진다.

Brightman은 역사의식을 문화적, 역사적으로 구성된 건축물이라고 언급했다. 물론 역사는 역사학자가 처한 사회적 상황과 관련성을 갖는다.<sup>14)</sup> 역사의식은 특정의 상상력을 양성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종류의 기억을 촉진하는데 있다. 그래서 역사의식을 조성하는 기억이 심리과정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는 것은 자명하

9) J.T. Marcus, *Sub specie historiae : Essays in the manifestation of historical and moral consciousness*, p. 205.

10) 이찬희, “역사의식의 개념과 역사교육”, *사회과학 교육*, vol. 22, August 1989, p. 307 ; 김에리, *중학생의 역사의식 발달에 관한 연구* (unp, 석사학위 논문, 충북대학교, 청주, 한국, 1993), p. 4.

11) 김정, “역사의식 발달에 대한 조사연구 - 초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광주교육대학논문집*, 제 12권, 1976, p.90.

12) R.G. Collingwood, *The idea of history*, pp. 7-10.

13) H.J. Kaye,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storytelling : John Berger's Fiction", *Mosaic*, vol. 16, no. 4, 1983, p. 45.

14) R.A. Brightman, "Primitivism in Mississippi Cree historical consciousness", *Man*, vol. 25, no. 1, March 1990, p. 109.

다. 우리는 인과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하는 참여, 또는 흥미를 자아내는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정신적 “도약”이라는 인지에 의하여 과거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기억하는 것(remembering)은 공간, 시간, 기계적인 인간관계를 초월하는데 있어서 그 역할을 한다. 아동의 경험이 성인에 의하여 기억되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이 형성된다. 즉 역사의식의 변화가 모든 분야에서 일어난다. 역사적 지식은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가능성을 지닌다. 역사인식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무엇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지각을 말한다. 이것은 의식단계에 있어서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지식의 발전을 가르친다. 물론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전체 과거와 비교하면 하찮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목격하지 못한 단편적인 과거에 대한 이해 사이에는 큰 차이점은 없다.<sup>15)</sup>

역사의식은 문화라는 범주 안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인의 시각에 있어서 지적, 문화적, 철학적 요소들은 중요하다. Rüsen이 주장하기를, 역사의식은 단순히 과거의 간단한 지식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역사의식은 역사적 지식을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조직화한다. 이것은 정신적 작용으로 분석될 수 있다. 정신적 작용은 독특한 역사적 사고로 정의되며 인간의 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16)</sup> 이 주장은 Collingwood의 이론과 연결된다. Collingwood의 이론에서는, 역사의식이 역사적 사고의 경험, 자아의식, 역사적 존재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주장했다.<sup>17)</sup>

Marcus가 설명하기를 역사의식은 “한 인간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자아 반성적인 시간의 지각을 객관화하는 개인의 독특한 힘이며, 공동체 사회의 집단적인 삶을 체계화하는 데 있어 개인 자신의 경험을 시간적 체계로 전이시키는 개인의 고유한 힘이다.”라고 하였다. 기원과 발전, 성장과 쇠퇴, 상승과 하락, 정체와 진행, 존재와 생성이라는 역사적 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시간적 차원은 모두 자아반영과 개인적인 기억에서 연장된 것이라는 설명이다.<sup>18)</sup>

역사의식의 주된 기능은 경험의 종합과 다양화에 관련된 틀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나아가 사물의 의미를 밝히고, 개인의 삶에 대한 목표를 제시한다. 동시에 역사의식은 공동체 사회에 단결된 가치방향을 제시하며 공동체의 정체성/동일성을 함양시킨다.

역사의식은 시간 연속체에 관련 있는 사물들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통찰력을 제시한다. 이러한 형태에 있어서 역사적 의미는 “역사적으로 되어 가는 목적론적 관점”이라고 가정하였다.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개인의 역사의식을 의미한다. 역사목적론의 다양한 형태를 모두 존재와 생성을 융합한 의미에 또는 종말론적 결말에 이르게 되는 관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sup>19)</sup>

---

15) J. Lukacs, *Historical consciousness of the remembered past*, pp. 340-341.

16) J. Rüsen, *Studies in metahistory*, pp. 195-197.

17) R. G. Collingwood, *The idea of history*, pp. 7-10.

18) J.T. Marcus, *Sub specie historiae : Essays in the manifestation of historical and moral consciousness*, pp. 192-193.

현재 역사의식은 인간의 현실과 인간의 잠재가능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변증법적인 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즉 현대의 역사의식은 현재의 사건들이 인간이 경험했던 것,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에 관한 보다 넓은 시각에 대응하여 판단 될 때만이 그 의미를 지닌다는 변증법적인 인식인 것이다.<sup>20)</sup>

아프리카의 역사의식의 이해는 실용주의 효용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역사학자인 Kapp박사는 역사의식 발전에 필요한 주요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역사적 현상, 사건들과 사건들이 발생한 시간, 배경사이의 관계 속에서 습득되어진 시각에 의한 연대순적인 의미와 시각의 진전.
- 역사적 현상과 사건들의 독특한 면과 일반적인 면을 고려해 보기 위해서 원인과 결과, 공유와 교체, 유사점과 차이점이라는 역사적 과정의 특별한 특성에 관한 이해의 발전.
- 문제점과 현상에 관한 역사적인 편견을 없애는 것과 역사적 유산과 전통의 역할에 대한 가치를 비판적인 자세로 판단하는 것, 두 가지 모두를 촉진.
- 현시대의 문제점들과 현상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의 통찰력을 개발.
- 미시적 단계와 거시적 단계에 있어 인간 사이의 상호의존성과 인간관계의 독특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국가적, 국제적 시각.<sup>21)</sup>

N.S. Kekana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인들이 갖고 있는 역사의식을 “과거 특정한 국가에 소속된 개인의 역사의식이다. 그리고 역사의식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개인 자신에게도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정의하였다.<sup>22)</sup> 흑인들의 과거는 주로 구전전통(oral tradition)을 통하여 표현되었다. 따라서 구전전통은 그들의 역사의식의 핵을 형성한다. 그들의 역사적 경험을 유럽인의 역사적 경험과 다르며, 흑인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역사의식 형태를 분명히 나타냈다.<sup>23)</sup>

위에서 언급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을 종합해보면 역사의식을 다음과 같이 결론지어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역사적 인식과 행위의 근거가 되는 존재의식이며 자아의 자각으로 일종의 심리적 과정이다.

19) J.T. Marcus, "The consciousness of history", *Ethics*, vol. 73, no. 1, October 1962, p. 38.

20) L. Tremaine, "Historical consciousness in Stepleton and Malraux", *Science-Fiction Studies*, vol. 11, July 1984, p. 131.

21) P.H. Kapp, *Standpunt oor geskiedenis en geskiedenisonderrig in die Suid-Afrikaanse samelewing* (ongep. Referaat, GeskiedenisKommissie van die Suid-Afrikaanse Akademie vir Wetenskap en Kuns, Pretoria, 9 Februarie 1996, p. 2).

22) N.S. Kekana, *African languages and the development of historical consciousness among the black people*, p. 1.

23) N.S. Kekana, *Proposal on historical consciousness among the black people*, p. 2.

둘째, 역사이해를 통해 역사적 개념발달을 수반해야 하는 인지적 과정이다.  
 셋째, 철학적 입장에서 볼 때 역사의식은 실존적인 '나'로 하여금 '나의 역사성을 자각하도록 하는 존재의식이며 자아개념'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현재의 세계에 사는 존재로서 나의 역사에 대한 지적 감각과 역사적 사고의 내면화의 심리이며 역사성의 지각이며 역사적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의식이다.  
 다섯째, 역사적 사고력 즉 제 사실과 현상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긍정적으로 역사적 의미를 추구하는 사고능력이다.  
 여섯째, 역사적 문제의식, 즉 역사로부터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나아가 사회개혁을 실천하려는 주체적 의지이다.  
 일곱째, 자기발견에서 출발하여 자신을 사회나 국가에 참여시키는 상호의식으로서 제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려는 사회의식이며 국가의식이다.

### 3. 문화와 문화적 정체성

#### 3.1 문화의 정의

문화는 포괄적인 사회이론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개념이다. 물론 해석에 있어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자유주의, 보수주의, 비평주의 이론가 등 모두 그들의 분석에 있어서 문화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sup>24)</sup>

“문화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답하자면 문화는 인간들로 구성된 집단의 생활 방식이다. Beyer와 Trice는 문화에 대한 두 가지 일반적인 관점을 주장했다. 첫째로는, 명확한 정의라고 볼 수 있는데, 문화는 외부 또는 외부인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감지된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첫째와는 반대되는 관점으로, 문화는 너무 깊게 자리잡고 있어서 파악하기 힘들며 단지 광범위하고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 질 때만이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찰을 위하여 문화의 외부현상을 연구할 때 유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는 시간에 따라 역동적이고 변화가 심하다. 일정한 단계에서 균형을 이루는 기간은 변화를 원하지 않는 집단의 영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25)</sup>

문화적 차이는 두 개의 상이한 국가,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비교함으로써 이해되어질 것이다. 두 국가는 언어, 주택, 의복, 음식, 관습, 신앙, 조상 등 여러 면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각각의 문화에 대한 두 집단 사이의 차이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인간은 그들 문화에 따라 행동한다. 사람들이 문화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다.

Hofstede가 정의하기를, 넓은 의미의 문화라는 것은 한 집단의 구성원들과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간의 차이를 구별하는 마음이나 정신 또는 사고방식의 집합적 프로그램

24) J.R. Mallea, "Multicultural education : An alternative theoretical framework", K.A. Mcleod(ed.), *Multicultural education : A partnership*, p. 4.

25) N.L. Brehm, *The impact of South African culture on the management of people* (unp. M.A. disertation, University of Witwatersrand, Johannesburg, 1994), pp. 8-9.

래밍(collective programming of the mind)으로 정의하면서 문화 형성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환경을 습득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다.<sup>26)</sup>

대부분의 인류학자들과 그 밖의 사회과학자들이 정의하고 있는 문화라는 개념은 총체론적인 전망(totalist view)과 관념론적인 전망(mentalist/idealist view) 두 가지 범주로 정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 총체론적인 전망은 ‘한 인간집단의 생활양식의 총체(totality)’를 가리키는 말로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설명은 적응메카니즘으로서 문화의 기능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들로서의 도구, 기술, 사회조직, 언어, 관습, 신앙 등의 총합체를 문화라고 부르고 있다.<sup>27)</sup> 이와는 다르게 문화의 총체론적인 전망에서 본 문화의 한 부분인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관념적인 영역에만 한정시켜 문화를 간주하는 경우다.<sup>28)</sup> 예를 들어 대화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의 대화중에서 관념론적인 전망에서 문화를 보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행동으로서의 말과 그것을 지배하는 규칙(문장에서의 문법에 해당)또는 원리를 구별하여, 문화라는 말을 단지 후자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정시키고 있다.<sup>29)</sup>

문화에 대한 위 두 가지 설명에 대해 어느 것이 옳고 또 어느 것이 틀린 것이라는 주장은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입장은 그들이 각기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개념을 분류하여 설명하지 않고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나열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Groenewald는 다양한 국가의 환경 안에서 인간이 획득한 모든 것이 문화이며, 문화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했다. 즉, 문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문화는 인간이 국가적 상황 속에서, 그리고 주위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내고 획득한 모든 것의 총체로서 특정 사람들의 문화는 그들 삶의 전체적인 과정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sup>30)</sup>

Rich는 문화를 일반적으로 전통으로 생각되는 집단의 행동양식을 습득하고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형태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31)</sup>

---

26) G. Hofstede, "level of culture", G. Hofstede, *Cultures and organizations : Software of the mind*, pp. 4-5.

27) 이런 입장에 선 전형적인 학자로 타일러(E.B. Tylor)를 들 수 있다. 타일러는 문화를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얻어진 다른 모든 능력이나 관습들을 포함하는 複合總體”라고 주장했다.

28) 인류학의 다양한 전문분야 중 구조주의 인류학, 인지인류학 및 상징인류학 등에서 주로 관념적인 전망에 선 문화의 개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학자로 구드이나프(W.H. Goodenough)를 들 수 있다. 구드이나프에 따르면 사회마다 그 성원들의 행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준 또는 규칙을 발견할 수 있는 데 이와 같이 한 사회의 성원들의 생활양식이 기초하고 있는 관념체계 또는 개념체계를 문화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29) M.E. de Haas, "Whose reality? : Fundamental issues in mediation and negotiation in South Africa today", *Reality*, vol. 20, no.2, March & May 1998, p. 27 ; 한상복 외, *문화인류학개론*, pp. 63-69.

30) D.M. Baloyi, *The teacher as an educator within a particular culture* (unp. M.A. dissertation, Rand Afrikaans University, Johannesburg, 1996), pp. 11-12.

31) H.M. Weich, *Intercultural public relations as practised by an organization with employees*



Schein이 내린 문화의 정의는, 집단 구성원들이 문화를 외적인 적응과 내적인 통합을 이루려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도구로서 이해하고 그것이 타당한 근거가 있어서 새로운 구성원들에게 학습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32)</sup>

Fetzer는, 사회 가치체계, 사상, 인생의 관점, 기준, 기술, 정치, 경제체계, 종교, 사회구조가 문화라고 정의 내렸다. 이러한 것들은 언어, 교육, 문학, 그리고 예술과 같은 다른 형태로 구체화되고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sup>33)</sup>

문화는 구체적인 사물뿐만 아니라 사상, 언어, 그 밖의 다른 행동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내포하고 있다. 문화는 인간이 창출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적응하여 일부분이 되어 가는 활동의 생산물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는 각각의 생산물들은 문화의 일부로 형성되지 못한다.

Bagby에 의하면 문화는 규칙을 지닌 행동양식의 특정부류이다. 여기에는 내적인 행동과 외적인 행동 모두가 포함된다. 행동의 생물학적인 유전 요소들은 제외된다. 문화의 일정한 규칙들(cultural regularities)은 개인의 행동에서 순환되거나 또는 순환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대다수 구성원들의 행동 안에서 정기적인 흐름으로 순환되어야 한다.<sup>34)</sup>

문화는 인간의 자기 확장과 초월을 위한 매개체이다. 상징화, 의식(관습), 상호 주관성 같은 공유된 의미나 중요성 때문에 문화는 개인적 정체성과 집단적 정체성이란 개념을 구성한다.<sup>35)</sup>

Hofstede는 다음과 같이 문화적 단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 국가적 단계
- 지역적/인종적/종교적/언어학적 동맹단계
- 성(性)의 단계
- 사회계급적 단계, 그리고
- 각각의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조직화되거나 협력하는 단계<sup>36)</sup>

Cohen은 문화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 문화는 인간

---

*from different cultural groups* (unp. M.A.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Africa, Pretoria, 1982), p. 46.

32) N.L. Brehm, *The impact of South African culture on the management of people* (unp. M.A.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twatersrand, Johannesburg, 1994), pp. 9-10.

33) M.M. Sominso, *The importance and relevance of cross-cultural communication in contemporary South Africa* (unp. M.A. dissertation University of Port Elizabeth, Port Elizabeth, 1996), p. 16.

34) P. Bagby, *Culture and history : Prolegomena to the comparative study of civilizations*. p. 88.

35) J.A. Marcum, *Education, race, and social change in South Africa*, p. 91.

36) G. Hofstede, "level of culture", G. Hofstede, *Cultures and organizations : Software of the mind*, pp. 10-11.

들에게 강제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상호적 사회작용을 통하여 사람들에 의하여 창조 또는 재창조된다. 둘째, 문화는 끊임없이 생성되며, 결정론적인 효력을 지닌 것도, 객관적으로 보아 동일한 대상물을 갖는 것도 아니다. 셋째, 문화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인지하도록 하게 할 때, 또는 사회적 행동에 의미를 부여할 때 더욱 명백히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sup>37)</sup>

문화는 다양하며, 동시에 하나로 귀결된다. 문화는 역동적이며 동시에 문화가 구체화되는 모든 역사적 상황에서 습득된다. 아마도 문화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의 목적과 기능을 약속하는 것일 것이다. 문화는 인간의 삶에 있어 실질적으로 중요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한다. 그리고 문화는 한 사회를 조직한다. 이는 체제를 존속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시도와 실패를 겪으면서 모든 것을 습득하는 위험하고 희생이 따르는 과정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렵게 얻은 지난 세대의 지식과 경험을 젊고 경험이 부족한 세대에게 전수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즉, 문화는 사람들이 음식을 구하고, 집을 짓고, 병을 치료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에 대처하고, 젊은이들을 교육시키고, 사회를 조정하고, 청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치고, 범죄자에게 처벌을 가하는 등 일련의 모든 것들과 관련된 관습과 행동이다. 문화는 언어, 노래, 전통 춤, 민속, 종교, 경제, 정치 등을 포함한다. 요컨대, 문화라는 것은 일생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모든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 3.2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

Oxford Dictionary에서는 정체성을 같은 성질(quality) 또는 상태(condition)라고 정의 내렸다. 이것은 단일된 감정을 표현하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Marcum에 따르면,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동일하다는 자각인 집단 의식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정신적으로 타인들과 결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가치의식, 귀속의식과 개인적 안전의 필요성은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한 인간은 많은 다양한 집단들로 구성된 세계 안에서 한 가지 집단 이상의 동일성을 지닐 수 있다.

정체성의 확인/동일화(identification)라는 이름하의 구속은 분명 혼합된 사회환경 안에서 더욱 더 복잡성을 띠게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친족 또는 부족으로 구성된 작고 원시적인 사회는 대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관습과 전통에 따르게 된다. 예를 들면, 남자는 남성의 동일성을 지니고, 독신 남성은 독신 남자들로 구성된 집단의 동일성을 형성하는 등 관련된 보다 작은 집단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같은 경우가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남자로 구성된 모든 하위 집단들을 조직하는 한 집

---

37) N.B. Pityana, *Beyond transition : The evolution of theological method in South Africa : A cultural approach* (unp.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pe Town, Cape Town, 1995), pp. 72-73.

단으로서의 그들의 구성집단 속에서 여성과 구별된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은 포괄적인 집단 안에서 동일한 정체성을 형성한다. 한 집단으로서의 그들은 또한 외부의 집단이 아니라 관련성 있는 다른 집단과 동일시한다. 이러한 단계에서 외부 집단은 대개 적으로 간주하여 적대감과 이질감을 가진다.<sup>38)</sup>

문화적 정체성은 Brock과 Tulasiewicz가 정의 내린 용어다. 이것은 종교, 사회구조, 철학, 국가의식과 특정양식, 예술, 그리고 내적인 관습, 유희, 신화, 그리고 공식적·비공식적인 다양한 방식에 의하여 획득된 언어의 형식을 통하여 민족성으로 정의된 것들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문화적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며 또한 유지시켜 주는 기초가 된다.<sup>39)</sup>

문화적 정체성은 국가집단 혹은 민족집단의 문화적 요소에 접근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비교 인류학은 문화적 정체성을 정치적, 경제적 또는 보다 특수한 사회와 교육구조 안에서 형성된 삶의 독특한 방식이라고 규정짓는다.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용어는 기준, 가치, 태도, 정책과 관련 깊다. 이것은 사회 양상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표준이 된다. 문화적 정체성은 그것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구조화되는 방법이며, 기준,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태도와 행동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규정짓는 인지적 체계이다. 추상적인 용어로서 문화적 정체성은 내면화된 문화적 의식이며 현실에 대한 명백한 동일화의 과정이다. 국가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정체성은 공통된 문화 유산의 산물이다. 문화적 정체성과 민족주의는 독립된 존재 또는 정치적 국민의 창조를 위한 기준으로서 선택된 어떤 정체성 양식으로서 연관성을 지닌다. 그 요소들은 언어, 역사, 종교, 활동영역, 문화유물 또는 상징과 같은 독립된 존재로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지는데 이러한 각각의 요소들은 특별한 문화적 정체성과 국가적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40)</sup>

Stuart Hall이 주장하기를, 문화정체성은 존재(being)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생성(becoming)의 문제라고 했다. 이것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가 달린 일이다. 이것은 장소, 시간, 역사를 추월하지 않는다. 문화적 정체성은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했건 간에 역사성을 지닌다. 그러나 역사에 관련된 것들이 모두 변하는 것처럼 끊임 없이 변화를 겪는다.<sup>41)</sup>

Segers는 특정 집단이나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함축하는 문화적 정체성이란 개념은 단지 그들의 국가 정체성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되며 문화적 정체성은 국가적 정체성 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정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 혹은 그 국가 내부의 특정 인종적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다음의 세 가지 요소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sup>42)</sup>

38) J.A. Marcum, *Education, race, and social change in South Africa*, pp. 88-89.

39) C. Brock & W. Tulasiewicz, "The concept of identity : Editors introduction", C. Brock & W. Tulasiewicz(eds.), *Cultural identity and educational policy*, p. 7.

40) C. Brock & W. Tulasiewicz, "The concept of identity : Editors introduction", C. Brock & W. Tulasiewicz(eds.), *Cultural identity and educational policy*, pp. 3-4.

41) N. Alexander, "Core culture and core curriculum in South Africa", S. Jackson & J. Solis(eds.), *Beyond comfort zones in multiculturalism*, pp. 212-213.

첫째, 역사상 주어진 시간 안에 국가 또는 집단에 관련된 공식적인 특징들.  
 둘째,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정체성에 기초한 마음이나 정신 또는 사고방식의  
 집합적 프로그래밍(collective programming of the mind)  
 셋째, 외부 사람들이 집단내부의 특성을 선택, 재해석, 평가하는 과정을 도출하는  
 방식. 즉, 이것은 외국 또는 타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외부의 이미지를 의미  
 한다.  
 세 요소의 관계는 동적이다. 관념상, 동일성에 대한 학문적인 해석은 세 요소 모두  
 에 기초를 두어야한다. 결국 문화적 정체성이란 문화에 기초한 자기 정체성/동일성  
 으로서 타집단과 구별되는 가치의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4. 경험적 연구

제 2 장과 제 3 장에서는 문헌연구로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다. 제 4 장과  
 5장은 경험적 연구로서 이 논문의 핵심을 이룬다. 전체적인 목적은 대상집단에 대  
 한 설문지의 분석에 따라 역사의식과 문화적 정체성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다.

제 2장과 제 3장의 문헌연구는 1997년 7월부터 1999년 2월에 걸쳐 이루어 졌다.  
 경험적 연구를 위한 연구도구인 설문지는 1998년 2월부터 1998년 8월까지 준비되  
 었다. 설문조사는 1998년 8월과 1999년 3월초에 이루어졌다.  
 수거된 설문조사는 통계학부의 분석을 거쳐 1999년 3월과 5월 사이에 논문으로 완  
 성되었다.

##### 4.1 설문대상자

경험적 연구를 위한 전체 대상자는 학부, 아너스(Honours) 과정, 석사, 그리고 박사  
 과정에 등록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학의 역사학과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Potchefstroom Univ의 통계학부(Statistical Consultation Service)의 도움을 받아  
 무작위로 선택한 학교는 다음과 같다.

Potchefstroom Univ. for CHE  
 University of Pretoria  
 University of the Western Cape  
 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  
 University of Transkei.

경험적 연구를 과학적이며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어지는 설문대상자의  
 숫자는 통계학부의 다음 공식에 의해 결정되었다.<sup>43)</sup>

42) R.T. Segers, "Inventing a future for literary studies : Research and teaching on cultural  
 identity", *Journal of Literary Studies*, vol. 13, no. 3/4, 1997, p. 269.

$$n \geq \frac{N}{1 + \frac{Nd^2}{10000}}$$

n : 표본크기

N : 전체

d : %

1998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사학과 자료(South African Historical Society newsletter)에 따르면 총 학생 수는 2800명으로 나타났다. 기준으로부터 11%의 오차한계를 감안했을 때,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갖기 위해서는 표본집단이 적어도 80명이 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작위로 선택된 5개 대학의 역사학과 학생은 모두 762명이었다.

<표4.1> 무작위로 선택한 5개 대학의 역사학과 학생수

	Potchefstroom Univ. for CHE	Univ. of Pretoria	Univ. of the Western Cape	Univ. of Transkei	Univ. of the Witwatersrand	계
2학년				250	60	310
3학년	5	44	380			429
아너스						
석사	1	10	12			23
계	6	54	392	250	60	762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대학의 협조부족으로 문제가 있었다. 사전에 공식편지와 전화로 협조요청을 하였고 모든 대학들이 흔쾌히 동의하여 이루어 졌으나 University of Western Cape과 University of Transkei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설문지 조사와 수거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부득이하게 다른 학교의 선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두 개의 대학을 대신하여 Vista University의 Bloemfontein 캠퍼스의 역사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 졌다. 결국 4개 대학에서 모두 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탈락한 두 개 학교의 설문대상자는 모두 642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여, 결과적으로 처음에 예정했던 수보다는 낮았지

43) H.S. Steyn, *Praktiese statistiek vir die geesteswetenskappe*, table 17-12.

만 통계학부에 따르면 연구에 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어 논문이 진행되었다.

**<표 4.2> 조사학생들의 대학별 분포현황**

대학	빈도	백분율(%)	누적빈도	누적백분율(%)
Potchefstroom University for CHE	5	5.4	5	5.4
University of Pretoria	22	23.7	27	29.1
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	27	29.0	54	58.1
Vista University	39	41.9	93	100.0

**<표 4.3> 성(性)**

성(性)	빈도	백분율(%)	누적빈도	누적백분율(%)
남자	48	51.6	48	51.6
여자	45	48.4	93	100.0

**<표 4.4> 연령**

연령	빈도	백분율(%)	누적빈도	누적백분율(%)
17세 이하	0	0.0	0	0.0
17-19세	1	1.1	1	1.1
20-22세	24	25.8	25	26.9
23-25세	17	18.3	42	45.2
26-28세	20	21.5	62	66.7
28세 이상	31	33.3	93	100.0

**<표 4.5> 학년**

학년	빈도	백분율(%)	누적빈도	누적백분율(%)
1학년	7	8.4	7	8.4
2학년	22	26.5	29	34.9
3학년	39	47.0	68	81.9
아너스	2	2.4	70	84.3
석사	13	15.7	83	100.0
박사	0	0.0	83	100.0

무응답 = 10

<표 4.6> 언어

언어	빈도	백분율(%)
아프리카스(Afrikaans)	57	61.3
영어(English)	82	88.2
은데벨레(Ndebele)	6	6.5
코사(Xhosa)	29	31.2
줄루(Zulu)	36	38.7
페디(Pedi)	28	30.1
소토(Sotho)	53	57.0
츠와나(Tswana)	48	51.6
스와티(Swati)	5	5.4
벤다(Venda)	5	5.4
송가(Tsonga)	4	4.3

<표 4.7> 가족어(Home language) 선호도

언어	빈도	백분율(%)	누적빈도	누적백분율(%)
아프리카스(Afrikaans)	57	61.3	11	14.9
영어(English)	82	88.2	26	35.1
은데벨레(Ndebele)	6	6.5	26	35.1
코사(Xhosa)	29	31.2	35	47.3
줄루(Zulu)	36	38.7	39	52.7
페디(Pedi)	28	30.1	45	60.8
소토(Sotho)	53	57.0	59	79.7
츠와나(Tswana)	48	51.6	71	95.9
스와티(Swati)	5	5.4	72	97.3
벤다(Venda)	5	5.4	73	98.6
송가(Tsonga)	4	4.3	74	100.0

무응답 = 19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조사대상자의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2개국어 이상의 언어를 사용(bilingual)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조사대상자들이 영어 또는 아프리카스어를 말할 줄 아는데 이는 이 두 개의 언어가 공식어로서 사용되어졌었고 교육을 받으면서 주요 교육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모든 학생들은 집에서 그들의 모어(home language)를 사용하고 있다.

<표 4.8> 종교

연령	빈도	백분율(%)	누적빈도	누적백분율(%)
사도 전도회 (Apostolic Faith Mission)	0	0.0	0	0.0
캐톨릭(Catholic Church)	1	1.1	1	1.1
네덜란드 개혁교회 (Dutch Reformed Church)	24	25.8	25	26.9
힌두교(Hindu Faith)	17	18.3	42	45.2
무슬림(Muslim Faith)	20	21.5	62	66.7
유대교 (ZCC ; Zion Christian Church)	31	33.3	93	100.0

무응답 = 47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사대상자들이 기독교를 절대적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인도인이나 말레이계 학생들이 조사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로부터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조사대상자들이 기독교와 무종교를 가진 학생들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은 불분명한 답변이 많은 것으로 보아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표 4.9> 아버지의 교육수준**

아버지의 교육수준	빈도	백분율(%)	누적빈도	누적백분율(%)
학교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	14	15.2	14	15.2
초등학교(중퇴 또는 졸업)	13	14.1	27	29.3
중등학교(중퇴 또는 졸업)	40	43.5	67	72.8
교사교육과정(Teachers Training Programme)	4	4.3	71	77.2
기술학교(Technical school)	3	3.3	74	80.4
대학(중퇴 또는 졸업)	6	6.5	80	87.0
대학원 과정(Honours/Master's/Doctor's degree)	3	3.3	83	90.2
잘 모른다	2	2.2	85	92.4
적용할 수 없다	7	7.6	92	100.0

무응답 = 1

**<표 4.10>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빈도	백분율(%)	누적빈도	누적백분율(%)
학교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	10	11.2	10	11.2
초등학교(중퇴 또는 졸업)	16	18.0	26	29.2
중등학교(중퇴 또는 졸업)	38	42.7	64	71.9
교사교육과정(Teachers Training Programme)	9	10.1	73	82.0
기술학교(Technical school)	0	0.0	73	82.0
대학(중퇴 또는 졸업)	6	6.7	79	88.8
대학원 과정(Honours/Master's/Doctor's degree)	5	5.6	84	94.4
잘 모른다	1	1.1	85	95.5
적용할 수 없다	4	4.5	89	100.0

무응답 = 4

응답자의 90% 이상이 그들의 부모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8> 계급의식**

계급	빈도	백분율(%)	누적빈도	누적백분율(%)
노동계급(Working class)	0	0.0	0	0.0
중하위계급(Lower middle class)	1	1.1	1	1.1
중상위계급(Higher middle class)	24	25.8	25	26.9
엘리트(The elite)	17	18.3	42	45.2
계급이 없다	20	21.5	62	66.7
잘 모른다	31	33.3	93	100.0

무응답 = 3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스로를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에 속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계급구분이 유럽이나 아시아처럼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 4.2 설문지의 구성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의식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설문지는 논문지도교수, 통계학부, 그리고 Potchefstroom Univ.의 설문조사연구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개발되었다. 설문지는 책자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설문지는 이 논문의 뒤에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표 1.12> 설문지의 내용과 구성<sup>44)</sup>

#### A : 인적사항에 관한 설문(Biographical details)

구분	설문내용	설문번호	설문유형
인적사항	성(性)	1	선다형
	연령	2	선다형
	학년	3	선다형
	언어	4-5	선다형
	종교	6	선다형
	부모의 교육정도	7-8	선다형
	계급	9	선다형

#### B : 역사의식의 기초가 되는 설문(The basic question of historical consciousness)

구분	설문내용	설문번호	설문유형
역사의식의 기초가 되는 설문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	10	선다형
	역사분야에서 흥미 있는 영역	11	선다형
	역사적 시간/시대에 대한 인식	12	선다형
	역사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13,17	선다형
	과거의 역사로부터 얻는 기대/교훈	14-15	선다형 + 설명형
	역사의식 형성의 인적,물적자료	16,18	선다형
	가족들의 역사의식 형성	19	선다형
	향토사에 대한 인식도	20-21	선다형
	역사적 의미에 대한 인식	22	선다형
	세계사에 대한 관심도	23-24	선다형 + 설명형

#### C : 역사의식의 발달단계에 따른 설문(The question regarding development

44) 설문지의 설문형식은 세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선다형중 단 하나의 답변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하나 이상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문 결과도 누적빈도와 누적백분율(%)이 없는 것과 있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형이 있다. 이 문항은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stage of historical consciousness)

C.1 시간의식(Consciousness of time)

구분	설문내용	설문번호	설문유형
시간의식	세기에 대한 시간개념	25	선다형
	연대의식	26	선다형
	역사의 변화과정/순서에 대한의식	27	선다형
	시대구조/의식에 대한 이해	28	선다형

C.2 변화의식(Consciousness of transition)

구분	설문내용	설문번호	설문유형
변화의식	세계사의 변화에 대한의식	29	선다형
	19세기와 20세기의 변화속도	30	선다형
	1994년 이전과 그 이후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사의 변화속도 비교	31	선다형

C.3 인과의식(Consciousness of causation(causality, cause and effect))

구분	설문내용	설문번호	설문유형
인과의식	역사적 사건의 인과의식	32	선다형
	냉전에 대한 인과의식	33	선다형

C.4 시대의식(Consciousness of period)

구분	설문내용	설문번호	설문유형
시대의식	현대에 대한 시대개념	34	선다형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시대의식	35	선다형
	국제사회의 시대적 흐름에 대한 의식	36	선다형
	역사의 시대구분 특징의 의식	37	선다형

C.5 발전의식(Consciousness of development)

구분	설문내용	설문번호	설문유형
발전의식	발전개념에 대한 이해	38	선다형
	역사발전의 원동력에 대한 의식	39	선다형
	역사발전의 주체성에 대한 의식	40	선다형
	현대의 문제점에 대한 의식	41	선다형

D. 서술형식의 심화설문(Intensified descriptive question)

구분	설문내용	설문번호	설문유형
현재에 의해 표출된 역사의식	일반(General)	42-57	선다형 + 설명형
	정치(Politics)	58-59	선다형 + 설명형
	경제(Economics)	90-94	선다형 + 설명형
	사회(Society)	95-104	선다형 + 설명형
	문화(Culture)	105-112	선다형 + 설명형
	역사(History)	113-147	선다형 + 설명형
	교육(Education)	148-152	선다형 + 설명형

## 5. 설문조사의 결과와 분석

이장에서는 경험적 연구로서 이루어진 10-152번까지의 설문결과를 질적 양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5.1 역사의식의 기초가 되는 설문(설문 10-24)

설문 10-24까지는 응답자들에 대한 역사의식의 수준과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공되었다. 설문 10-12, 23-24는 일반적으로 역사에 대한 관심과 특별한 시기, 분야에 대한 것이다. 설문 13, 14-15, 그리고 17번은 과거에 대한 공부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다. 또한 설문 18-21에서는 역사적 지식을 어디에서 주로 습득하고 있으며 향토사에 대한 관심이 어떤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설문 22는 역사의 의미와 개념에 대해 질문하였다.

위의 질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응답자들은 주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시기에 역사에 대한 흥미를 갖기 시작했으며 근, 현대사에 중에서 정치사에 관심이 많았다.
- 이들은 역사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게 해주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가치나 이념을 이해할 수 있다는 바람직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
- 역사의식형성에 중요한 인적 요소는 부모이며 이들은 매일 가족과 역사에 대해 대화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적 자료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 이들은 향토사에 대해서 강한 관심을 보인 반면, 세계사에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정도로 아프리카와 유럽에 편중되고 치우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2 역사의식의 발전단계에 따른 설문(설문 25-41)

설문지에서 이 항목은 역사의식의 실제적인 본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

다. 역사의식은 현재와 과거, 변화와 발전, 원인과 결과, 시대적 구조와 발전개념에 대한 이해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을 인식함으로써 분석되어질 수 있다.

각 분야에 해당하는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5.2.1 시간의식(Consciousness of time) (설문 25-28)**

- (1) 세기에 대한 시간개념
- (2) 시대
- (3) 역사의 변화과정과 순서

#### **5.2.2 변천의식(Consciousness of transition) (설문 29-31)**

- (1) 세계사에 대한 변화
- (2) 시대/세기변화의 속도
- (3)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변화속도.

#### **5.2.3 인과의식(Consciousness of causation(causality, cause and effect) (설문 32-33)**

- (1) 역사적 사건의 인과관계
- (2) 냉전(Cold War)의 인과관계

#### **5.2.4 시대의식(Consciousness of period) (설문 34-37)**

- (1) 현대에 대한 시간개념
- (2)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시간의식
- (3) 현대사의 변화와 시대적 흐름
- (4) 역사의 시대구분과 특성

#### **5.2.5 발전의식(Consciousness of development) (설문 38-41)**

- (1) 발전개념에 대한 이해
- (2) 역사발전의 원동력에 대한 의식
- (3) 역사발전에 대한 주체의식
- (4) 현대세계에 대한 문제의식

위의 설문들에 대한 결과와 분석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질 수 있다.

- 시간의식에 있어 응답자들은 부정확한 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응답자들이 최고학부인 대학의 역사학과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 정확한 역사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한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 응답자들에게 변화의 의식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은 대체적으로 “변화하고 있

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국내외적으로 변화의 내용과 속도를 피부에 와 닿게 강하게 느끼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사적 변화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 분야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과의식에서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건전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들의 시대의식은 대체적으로 미래 지향적이라기보다는 과거 지향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구조와 특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발전의식에 있어서 응답자들은 발전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나 역사발전의 주체와 주체적인 의식은 확고하다고 볼 수 없다.

### 5.3 서술형식의 심화설문(Intensified descriptive question) (설문 42-152)

사실,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설문지의 내용중 이 분야에 대한 질문은 현재 응답자들이 역사의식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의도에서 문항을 만들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어떤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못했던 마음속의 질문들을 펼쳐 보이려고 노력했다.

지금 급격한 변화와 격동기를 맞고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젊은 세대들은 과거의 세대와는 달리 무엇인가 다른 형태로 특징 지워지기를 강요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못하다.

먼저 응답자들이 보이고 있는 표면적인 행동 뒤에 숨겨지고 내포된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노력하였다. 만약 물과 기름처럼 이들이 융화하고 협력하지 못한다면 - 즉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역사의식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면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미래는 어둡고 희망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도 이러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만약 젊은 세대들이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도록 하고자 함이다.

이 분야의 질문은 일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그리고 교육으로 나누어 구성 되어 있다.

#### 5.3.1 일반(General) (설문 42-57)

이 부분은 그 어느 부분에 넣기에도 적당하지 않은 경우의 질문들을 한데 모아 “일반(general)”으로 분류하였다. 순서는 없으며 무작위적으로 배열하였고 어떤 질문들은 다른 분야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질문들도 있다.

이 분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남아프리카공화국인으로서의 의식(Being a South African people)

- (2) 국가의식(Being a nation)
- (3) 내전의 가능성(Possibility of civil war)
- (4)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Optimistic vision of South Africa's future)
- (5) 국가 공휴일에 대한 의식(Consciousness of National holidays)
- (6) 노예근성(Slavery mentality)
- (7) 국민으로서 소속감(the feeling that belong to the nation)
- (8) 국가에 대한 성실성(sincerity)/충성심(Sincerity/loyalty towards country)
- (9) 국가에 대한 문제의식(Problem in the country)
- (10)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의식(African countries)
- (11) 남아프리카공화국사람으로서의 자부심(self-confidence as a citizen in South Africa)
- (12) 소속집단 의식(Predominant feeling of one's cultural group)
- (13)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기에 대한 의식(The South African flag)
- (14) 역대 국민당 지도자에 대한 선호도 (Preferred National Party leader)

- 응답자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며 국기에 대해서도 모든 다른 문화집단을 통합시킬 수 있는 국가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으로서 국민의식은 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문화그룹에 더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아시아계통의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들은 강한 이질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와 국민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일로 하루빨리 해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미래를 전반적으로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르완다와 유고와 같이 내전으로 갈 수도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 응답자들은 자유와 평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가공휴일로 “자유의 날(Freedom Day)”과 “평화의 날(Peace Day)”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Nelson Mandela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한 날을 만들고 싶어하였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모든 문화집단들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날을 만들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아주 고무적이며 적절한 생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흑인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전히 “노예 근성(slavery mentality)”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응답자들은 국가가 처한 문제들에 대해 수시로 걱정하고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만약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경우 - 침략전쟁이 아니라 정당한 방어전쟁일 경우 - 참여하겠다고 답하고 있어 높은 도덕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약 30%의 응답자들이 결코 전쟁에 참



여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국민적 통합이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응답자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역내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발전 그리고 역사·문화적 전통 순으로 들고 있다.
- 응답자들은 자신이 속한 문화집단의 우월성(predominant feeling)에 대해 각기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자유와 희망을,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하고 있다. 이렇게 답한 이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자유와 평화가 바탕이 된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답변했고,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겪고 있는 변화가 많은 부분에서 자신이 속한 문화집단에 불이익을 가져오며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 부분은 심각한 고려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 과거 국민당 정권 하에서는 F.W. de Klerk가 집권하던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 개혁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 5.3.2 정치(Politics) (설문 58-89)

정치 분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치적 발전(Development in South Africa's politic)
- (2) 국가발전에 대한 의식(Consciousness of factors in the country's development)
- (3) 진실과 화해위원회(TRC ;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 (4) 아파르트헤이트의 철폐에 따른 역사적 상황 인식(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situation in terms of the demise of Apartheid)
- (5) 아프리카 민족회의와 잉카타 자유당의 권력투쟁(Power struggle between ANC and IFP)
- (6) 정치적 분열에 대한 의식(Consciousness of political disunion)
- (7) 아프리카너의 정치적 경제적 특권(Afrikaners' political and economic privileges)
- (8) 정치정당의 선호도(Support for political parties)
- (9) 남아프리카공화국 군대에 대한 의식(SANDF ; South African National Defence Force b)
- (10) F.W.de Klerk의 민주화(The democratic reform of F.W. de Klerk)
- (11) 흑-흑간의 폭력(The black-on-black violence/the AANC/IFP conflict)
- (12)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The nation's self-confidence and dignity)
- (13) 노동조합의 정치적 행동(The political behaviour of trade union)

- (14) 이념/사상에 대한 의식(Ideology)
- (15) 아프리카국가들에 대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외교적 역할(S.A.'s diplomatic role for African nations)
- (16) 아프리카국가들에 대한 패권국/지도국으로서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역할(S.A.'s role among African nations as a superpower and leading country)
- (17)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제적 외교정책(S.A.'s international diplomatic policy)
- (18) 대만에 대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외교정책(The diplomatic policy of South Africa towards Taiwan)
- (19) 아프리카 국가들의 발전과 통합(The unity and development of African nations)
- (20) 각 문화집단의 역사의식과 문화적 정체성(Historical consciousness and cultural identity of different cultural groups)
- (21) 무지개 국가(The conception of "Rainbow Nation")
- (22) 1994년 정치권력의 평화적 이양(A peaceful turn-over of political power in 1994)
- (23) 정치적 행동표현(The expression of political action)
- (24) 차별에 대한 의식(Discrimination)
- (25) 소수인종그룹에 대한 흑인정부의 처우(The black government's treatment of racial minorities)

정치분야에 대해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발전에 대한 요인으로는 국제정치적 요인보다는 국내정치적 요인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1994년의 정권교체는 타협을 통한 위로부터의 민주화 과정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사에 기억될 민주주의의 유산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각 문화집단 사이에 관계가 좋아지고 있고 하나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되고자 하는 열망에 대해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범죄, 폭력 그리고 부정부패의 확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각 문화집단이 형성한 역사의식이나 문화적 정체성은 서로 충돌(예-내전)을 일으키지 않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 과거청산기구로서 TRC를 미래의 국가발전에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처벌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을 보임으로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반된 주장의 이유는 과거는 과거의 일로 묻어두어야 한다는 입장과 책임론을 들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철폐된 주된 원인은 흑인들의 저항 때문이었으며 국제사회의 압력과 제재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되고 있다.

- 과거 1980년대에 있었던 ANC와 IFP사이의 정치적 분쟁은 국가권력을 선점하기 위한 권력투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심각한 정치적 상황을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요즈음 언급되고 있는 ANC와 IFP의 통합논의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과거에 특권을 누렸던 백인들은 1994년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 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ANC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견제와 비판을 해줄 야당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적 무관심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군인들(SANDF)은 서로 다른 역사적 정치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국가의식으로 잘 통합되고 화합될 것이라고 답변해 군부에 의한 잘못된 정치적 행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그 이유는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며 반면에 노동조합의 힘이 너무 강하면 권력투쟁과 부정 부패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 앞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치적 역사적 발전에 중요한 이념이나 사상은 자본주의와 민족주의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서 자본주의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념이기 때문에 중요시 될 것이며, 민족주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민과 국가를 통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앞으로 아프리카국가에서 패권국 또는 지도국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야는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인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자주적이고 실리적인 외교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국제사회의 냉엄함과 약육강식의 법칙을 냉철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무지개 국가(Rainbow Nation)” 개념에 대해서 응답자의 대부분은 각각의 문화 집단이 섞여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 의미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해하고 있었다.
- 정치적 행동에 대한 표현 양식은 매우 평화적인 방법으로 화해와 타협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 또다시 과거 아파르트헤이트와 같은 인종차별법이 생겨난다면 무력투쟁보다는 타협과 협상을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대처해가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일부사람들은 지내기에 큰 불편이 없다면 참고 지내겠다고 답하여 올바른 의식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현정부는 소수인종그룹에 대한 차별정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반적으로 답하

고 있으나 일부 의견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있게되면 그런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답하여 불안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5.3.3 경제(Economics) (설문 90-94)

경제분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적 전망(South Africa's economic outlook)
- (2)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지역경제협력(The African nations'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 (3)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South Africa's economic problems)
- (4) RDP 정책에 대한 의식(RDP :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me)
- (5)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발전정책에 대한 의식(South Africa's future economic development policy)

경제분야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발전을 매우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웃국가와 지역경제협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바라보고 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낮은 생산성과 부의 재분배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업문제를 해결해야할 가장 긴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 RDP정책에 대해 응답자들은 과생되고 있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 5.3.4 사회(Society) (설문 95-104)

- (1) 아프리카너의 안전과 미래(Afrikaner's future security)
- (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회적 국가적 불안정(Aspects of social and national insecurity)
- (3) 흑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Most important challenge for black people)
- (4) 범죄(Reasons of crime)
- (5) 해외이주를 하려고 하는 이유(The reasons for emigration)
- (6) 언론자유(Freedom of speech)
- (7) 법적 평등(Legal equality/rights)
- (8) 사형제도(Death penalty)
- (9) 자경단체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의식(Civil militia organizations' political behaviour)

사회분야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과거에 특권을 누렸던 아프리카너의 미래는 과거와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고 있지만 안전은 위협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사회와 국가의 불안을 야기하는 최대의 적은 범죄이며 범죄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 이유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 지금 흑인들에게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문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 해외이주를 하는 주된 이유는 정치적 불안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기 보다는 범죄의 만연, 경제적 어려움 같은 삶의 질이 하락하는데 그 주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언론의 자유는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 놀랍게도 1994년 이후 모든 사람들이 법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즉 여전히 불평등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며 응답자들은 법과 현실 사이에 심한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인권에 대해 강한 의식이 형성되어 있어 사형제도의 부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 자경단체의 활동과 정치정당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많은 의견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익집단과 자경단체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 5.3.5 문화(Culture) (설문 105-112)

문화 분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문화유산(South Africa's heritage)
- (2) 자신의 문화집단에 위상(The prestige of one's cultural group)
- (3) 다른 문화집단에 대한 선호도(Preference for other cultural groups)
- (4) 문화집단간의 협력(Cooperation between cultural groups)
- (5) 자신의 문화와 전통(Tradition and culture)

문화분야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 응답자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문화유산에 대해 자연관광자원 이외에 특별한 선호도를 보이지 않고 고른 응답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은 응답자들이 자신의 정치 역사적 지식과 경험을 배경으로 문화유산의 중요도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은 자신이 속한 문화집단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문화와 전통가치에 대해서도 강한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백인 응답자들은 자신이 속한 문화집단의 전통과 가치에 대해 정리되지 못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 자신을 제외한 문화집단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보다는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절대 다수의 응답자들은 각 문화 집단사이의 관계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나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응답자들은 교육적

배려가 있어야 하며 상호교류와 문화행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5.3.6 역사(History) (설문 113-147)

역사 분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가장 자랑할 만한 역사적 사건(The historical event of which they were proudest)
- (2)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인물(The most remarkable historical person)
- (3) 자신의 문화집단에서 자랑할 만한 인물(The most remarkable person from one's own cultural group)
- (4) 특정 역사분야에 대한 선호도(Influence of history field: comparison of black and white history)
- (5) 아파르트헤이트 시기에 가장 힘들었던 것(Biggest suffering during Apartheid period)
- (6) 음페카네에 대한 의식(The Mfecane/Difaqane)
- (7) 남아프리카 전쟁의 원인에 대한 의식(The cause of the South African War)
- (8) 1899-1902사이에 있었던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이의 전쟁 명칭에 대한 의식(War term between South Africa and U.K. during 1899-1902)
- (9) 피의 강 전투(The battle of Blood River)
- (10)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독립에 기여한 결정적인 사건(The most remarkable event that contributed to South Africa's independence)
- (11)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건(The most influential event in South Africa's history)
- (12) PAC의 아프리카니즘에 대한 의식(The Africanism of Pan-Africanist Congress)
- (13) 소웨토 폭동(The Soweto uprising)
- (14) 문화유산의 명칭(Cultural heritage terms)
- (15) 역사서술 방향(The new historical approach)
- (16) 역사문화 정책 방향(Historical and cultural policy)
- (17) 백인들의 이주사(White people's immigration)
- (18) 백인 정부가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실시한 원인(The reas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partheid policy by the former white government)
- (19) 인종차별정책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사발전의 관계(The relationship between racial discrimination(The Apartheid policy) and South Africa's historical development)
- (20) 역사적으로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건(The most shameful event in history)

- (2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앙골라 침략(South Africa's invasion in Angola)
- (22) 자신의 문화집단에 대한 이주자와 원주민의 구분(The distinction between settler or native in one's own cultural group)
- (23) 선주민과 이주민 집단에 대한 의식(Natives and emigrants)
- (24) 자신이 속한 문화집단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 (Contribution of cultural groups to South Africa's political groups and economical development)
- (25) 자신의 문화집단이 가장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는 역사적 기념물(Historical objects that one's cultural group takes most pride in)
- (26) 자신의 문화집단이 역사적으로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시기(The most difficult period that one's cultural group had to survive historically)

역사분야에 대해 그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사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응답자들은 1994년 정권교체를 들고 있으며 그 이유는 평화적으로 대화와 타협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다.
-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인물에 대해서는 Nelson Mandela와 F.W de Klerk를 들고 있다. Nelson Mandela는 27년간의 감옥생활에서 풀려나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므로, 와 F.W. de Klerk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 개혁을 주도한 인물로서 응답자들은 이유를 들고 있다.
- 자신의 문화집단에서 자랑할 만한 인물로서는 Nelson Mandela, Moshoesheo (Moshweshwe), King Sekhuhune I, and Winnie Mandela를 들고 있다. 그러나 자랑하거나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도 상당수 있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사에서 미래에 더 비중을 두어 가르쳐야 할 역사로 흑인들의 역사가 과거보다는 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상당수 있었으나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백인과 흑인 역사 모두를 중시하여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 백인과 흑인 어느 한쪽을 떼어놓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사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백인 정권하에서는 백인들의 역사 중심으로 역사교육이 이루어졌으며 또 해석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흑인 정권하에서 흑인들의 역사가 당분간은 우선시되고 중요시될 것으로 보인다.
- Apartheid 시대동안 가장 고통스러웠던 점은 인권침해와 유린 그리고 흑인들이 겪었던 불이익을 가장 고통스러웠던 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Mfecane에 대해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백인들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잘못 해석되고 있다고 답했으나 아직도 다수의 응답자들이 과거의 백인위주의 편협하고 독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

각과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응답자들은 1899-1902년 사이에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의 명칭을 South African War나 Boer War라는 명칭보다는 Angolo-Boer War라는 호칭으로 불리어 지기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이 발발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영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주의 때문이라기 보다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더 많은 응답을 해 냉철하고 정확하게 전쟁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응답자들은 Blood River War에 대해 백인들이 결정적으로 이 땅에서 지배세력으로 남게되는 전쟁으로 기억하고 있다.
- 응답자들은 1994년 흑인정권의 출범에 대해 진정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독립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화해와 타협에 의한 민주화 과정으로 진정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상당수의 응답자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사에서 금과 다이아몬드의 발견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답해 역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Africanism이라는 PAC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 백인정권의 탄압에 맞서 흑인들의 단결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그 당시 시대상황에 맞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Soweto uprising에 대해 응답자들은 국내적으로는 흑인저항운동과 백인정부의 탄압을 가속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국제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을 받게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다.
- 응답자들은 역사서술의 방향에 확고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화합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방향보다는 과거사 중심인 과거지향적 역사서술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과거에, 즉 아파르트헤이트 시기에, 명명되었던 문화유산의 이름들에 대해 지금의 시대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은 국민적 합의 위에 서서히 진행되어야 하며 주의 깊은 요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역사문화정책에 대해 응답자들은 백인 정권하에서 만들어졌던 문화유산이라고 할지라도 잘 보존하고 새로운 국가의식을 고양시킬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실시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과거의 모든 문화유산을 없애야 한다고 답해 과격한 면을 보이기도 하였다.
- 만약 백인들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더 발전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거의 찬반동수의 의견을 보여주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사는 백인들만이 이룬 것이 아니며 또 흑인들만이 이뤄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모두의 역사이며 또 모두가 협력해서 나아갈 때만이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응답자들이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백인정부가 Apartheid 정책을 실시한 이유는 오로지 백인들의 권익만을 위해 실시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



- 이었다고 답하고 있다.
- 역사적으로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응답자들은 Apartheid 정책, Sharpeville and Soweto 사건을 들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흑인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들고 있다.
  - 응답자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앙골라 침략에 대해 냉전에 의한 국제적 요인보다는 흑인저항세력의 지원세력 분쇄라는 국내적 요인에서 찾고 있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실익을 가져다주지 못한 전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이 전쟁의 원인에 대해 명확한 의식을 형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자신이 속한 문화집단이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으로서 Settler and natives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settler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분명하지 않은 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주해 들어온 white, Indian and Asian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약 16%의 응답자들은 전혀 동화할 수 없는 이질집단으로 언제인가는 몰아내야 할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자신이 속한 문화 집단이 국가의 정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약 21.3%의 응답자들은 그렇지 않거나 잘 모르고 있다고 답해 이 또한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백인 응답자들은 국가건설과 발전에 대해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흑인들은 백인정권에 대한 투쟁속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민주주의를 가져오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 자신이 속한 문화집단이 가장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는 역사적 기념물에 대한 응답에서는 응답율이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응답율의 저조함도 자신이 속한 문화집단에 대해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자신이 속한 문화집단이 역사적으로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시기는 역시 Apartheid 정책이 실시되던 시기로 생각하고 있었다.

### 5.3.7 교육(Education) (설문 148-152)

교육 분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언어정책(Language policy in South Africa)
- (2) 특정지역에 대한 대학에서의 역사교육 선호도(History teaching at University: geographical facts)
- (3) 특정영역에 대한 대학의 역사교육 선호도(History teaching at University: type of history)

- (4) 백인과 흑인의 역사 선호도(White or black history)
- (5) 학교에서의 역사교육의 가치(Value of history teaching at school)

교육분야에 대한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압도적으로 응답자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11개의 공식언어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응답하고 있다.
- 대학에서 역사학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역사학 분야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순으로 답했다. 그 순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사, 아프리카사, 유럽사, 미국사, 아시아사 순이었다.
- 역사분야에 대한 선호도는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성사(gender history), 환경사 순이었다.
- 절반이상의 응답자들이 지금까지의 교과서는 백인의 역사 중심으로 서술되고 쓰여졌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약 41%의 응답자들은 "Both"라고 응답하고 있다.
-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역사교육은 유익하고 필요한 과목이라고 답하고 있다.

## 6. 결론

### 6.1 결과와 설명

설문조사의 분석에 따른 연구결과는 제 5장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역사학과 학생들에게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역사지식의 수준은 미흡한 편이며 않으며 관심도 지역적으로 분야별로 치우쳐 있다. 또한 역사교육도 특정한 문화 집단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국가의식보다는 자신이 속한 문화집단에 더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으며 타 문화집단에 대하여 이질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신이 속한 문화집단에 자긍심이 부족하여 상반된 의식을 보이고 있다.
- 국가의 현 상태와 미래에 관한 학생들의 일반적인 태도는 신중한 낙천주의(cautious optimism)의 하나로 이해 할 수 있다.
- 1994년 이후로 정치 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인 만족감이 형성되었으며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해 선호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1994년을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사의 절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과거청산작업(TRC)에 대해 통일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범죄상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가장 큰 사회문제이며 국가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 경제적으로 낮은 생산성과 부의 재분배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흑인 학생들이 바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력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 **분열된 사회의 유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투쟁의 과거사를 가졌다는 것은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 다양한 집단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불행하게도 인종적 우월감, 정치적 문제, 전쟁이라는 불행을 야기했다. 백인들의 지배는 분리, 차별 정책을 낳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회는 더욱 분열되어, 그 분열의 깊이는 심화되었다. 과거에는 다른 투쟁들이 인종적, 문화적 집단간에 존재하였다. 흑인들은 식민지배와 백인들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갈구했고, 백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살려 보존하기 위하여 대응했다. 백인과 흑인 두 집단 모두에 의하여 배타 당한 유색인들은 그들과 맞서 싸웠다. 그래서 인도인들은 투쟁을 통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민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스스로 국가건설이라는 목표를 가진 진정한 단일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분열과 의심 때문에 국가 건설에 있어서 힘든 과정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일부 연구자들은 국가건설의 실행가능성에 대하여 비판적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사회는 현재 과거와 마찬가지로 차별적인 계급의식과 인종적 불평등이라는 강한 의식을 경험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차별제도를 철폐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와 사회적 지위는 여전히 인종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문화 집단에 대하여 품고 있는 불만족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의식적으로 자리잡혀있다. 그 결과 분리된 현실상황은 국가의 통합을 위협하고 있다.

백인들에 의한 흑인정부의 국정참여부족은 강하게 소외의식과 연관되어 있다. 더구나, 과거에 특권을 누렸던 백인들은 정치권력을 잃고 주변인이 되는 경험을 하게되었다. 이러한 백인들은 공적인 삶에서 제외되고 있다. 만약 그들이 엄청난 상실감과 박탈감을 갖게되어 사회에서 불만 세력으로 남는다면, 그들은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아프리카너 국가(volkstaat)의 건설을 고려할 것이다. 또한 거의 일당독재와 다름없는 ANC의 통치와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ity Act)은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낳으며 독재주의를 가져올 수도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민들 대다수가 명목상으로는 기독교도이기 때문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기독교는 효과적인 국민통합과 국가단결의 수단으로서 작용하여 왔다. 그러나 과거에 기독교는 정치적 목적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이용되었다. 그 예로, 기독교적 국가주의라는 정치적 이념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아프리카너 시민 종교가 이용되고, 흑인들의 신학은 자유주의 투쟁을 위한 정의의 일부분으로 이용되었다. 사회 내의 깊게 뿌리 박힌 분열은 기독교 영역까지 영향을 미쳤다. 기독교회는 사회문제에 대하여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이점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사회 내부에서 효과적인 국가통합의 힘으로서 기독교

가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파르테이트가 철폐된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새로운 계층이 출현하였다. 가장 높은 사회계급과 가장 낮은 사회계급에서 공통된 이익 추구를 위하여 상이한 인종 집단간에 어떤 접근이 있었고, 그 결과 인종 분리의 선이 불분명해질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중간계층에 있어서 인종 분리주의는 여전히 깊게 뿌리박혀 있다. 흑인 사회의 계층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 계층의 문제들은 아마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사회 안에서 새로운 현안이 될 것이며, 국가건설이라는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업자들은 사회의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업자들에게 새로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인의식을 갖게하고 상실감과 박탈감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통합할 인종적 가치 기준과 새로운 가치체계를 도출해내는 작업은 매우 까다로울 것이다. 분명한 것은 효과적인 대화와 교육이 사회 분열의 가교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점이다.

종교적, 인종적, 계급적, 또는 이념적인 하위국가적(sub-national) 충성은 국가나 국민, 제도, 그리고 국가적 상징에 대한 충성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적대적 관계에 있는 집단들의 화해는 성공적인 국가건설에 있어서 필요조건이다. 모든 시민들은 정치 참여를 일상화해야 하며 보다 폭 넓은 평등의식을 확립하여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라는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여성, 백인과 흑인, 그리고 카라드와 인도인, 부자와 가난한자, 중산계층과 노동자 계층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 **상이한 역사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5장에서 논의된 것처럼,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다른 문화 집단들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의식 형태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파괴적인 역사의식에 반대되는 건설적인 역사의식에 관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국가건설 과정의 튼튼한 기초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아파르테이트 정책을 폐지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왔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 일정부분 역할을 여전히 담당하게 될 것이다. 국가건설은 민주주의 정부와 화해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들이 공동의 협력과 공동의 이익, 국가 정체성의 발전, 상호신뢰, 충성심이라는 강한 연대의식, 상호화해와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면 가능하다. 국가건설을 위해서 인종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흑인과 백인의 이익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단결과 통합을 이루고, 각 문화집단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과 함께 도덕적 의무를 부여시킬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분명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은 있다고 할 수 있다. 1994년 동의와 화해를 통하여 이루어진 정치권력의 이양은 매우 현명하였고 시기 적절하였

다. 이것은 분명히 내부적 폭동과 인종적 분쟁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어떻게 민주화되는지는 1994년에 이루어진 이양과정이 성공적인 결말을 이루는데 중요한 변수령이 될 것이다.

## 6.2. 제언

### 6.2.1 역사 교육 프로그램

역사의식은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우리는 역사의식을 과거, 현재, 미래를 인식하는 것으로서 이해한다. 역사의식은 정적이며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역사의식은 교육 과정을 통하여 확립될 수 있는데 역사 이해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게 한다. 따라서 역사를 가르치는 주된 목적은 역사 인식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 두 번째 목적은 학생들의 역사 의식이 미래 지향적 성격을 갖게 하며 희망을 불어넣는 것이다. 역사의식을 기본으로 여기는데 있어서 여전히 역사교육의 과정과 목적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의 이해라는 정신적 측면과 역사의 개념을 이해하는 지적인 측면, 그리고 미래 지향적이며 창조적 태도를 취하는 실천적 측면을 포함하는 통합된 개념으로 용어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역사수업은 국가건설을 촉진시키고 문화 집단끼리의 증오보다는 조화를 유도하는 것을 중요시해야 한다. 정부는 역사교육을 통하여 국민들의 역사관을 고양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 개개인이 삶의 도전과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 체계는 그들이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결정을 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며, 물질적, 정신적, 지적 욕구를 채워 줄 수 있어야만 한다.

5장의 결과에서 나타난 몇 가지 약점은 역사교육에 의하여 시정되어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여전히 역사의식에 대한 심각한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다. 1994년까지 흑인들은 아파르트헤이트 아래에서 억압적인 백인지배를 받았다. 대다수의 백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아파르트헤이트를 지지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구시대적인 역사의식과 태도로 인하여 새롭고 변화하는 정치적, 경제적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결과가 명확히 지적하는 것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역사학과 학생들이 일치된 역사의식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구세대와 신세대 모두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나타낸다. 행동에 대한 과거의 사고와 과거의 양식은 현재의 사고와 양식과는 맞지 않으며, 새로운 의식과 행동 양식을 발전시키지 못한다. 이 점은 앞으로 더욱더 자세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역사의식 또는 국가의 역사 의식은 장기간에 걸쳐서 획득되며 다양한 생각과 느낌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만약 역사의식이 이미 형성되어 잘못된 지식의 바탕을 이루거나, 배타적인 국가의식이 문화집단의 역사의식에 기초하고 있다면, 자국, 자문화 집단의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역사 수

업이 남아프리카공화국 학생들이 자신들의 과거 문화와 타인의 문화,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하나의 통일된 국가의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정치적,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이루기 위하여 어려운 통과의를 겪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역사적 전개는 식민지배를 경험했던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다르다. 지배자와 지배받은 자 모두 현재 함께 한 장소에서 공존하고 있다. 그들의 상호이해와 협조는 국가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긍정적인 국가정신이 확립될 수 있다는 사실이 5장의 분석결과에서 강하게 표출되었다. 긍정적인 국가정신은 역사 교육을 통하여 다가갈 수 있다. 왜냐하면, 역사의식의 발전은 부분적으로 국가 발전이라는 환경 안에서 자주성을 발전시키려는 개인의 의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역사의식이 형성되는 방식은 정치적, 사회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행동의 내외적인 표현 사이에서 변증법적인 논리를 보여준다.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국가 구성원들의 강한 역사의식을 육성하는 것이다. 사회영역 안에서 건전한 역사의식은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발전을 이룩하는 시발점인 것이다.

한 주제로서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동시에 전체 인류의 생활방식을 연구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각 개개인이 바람직하고 자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역사의식을 이루게 하는 것은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나라를 통합시킬 것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교육은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되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건전한 역사 지식과 역사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역사의식의 패러다임을 위하여 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 자신의 집단에 대한 분명한 의식과 다른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발전시킨다.
- 문화유산에 대한 의식을 발전시킨다.; 역사적 가치, 그리고/혹은 문화적 중요성을 지닌 유적은 역사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향토사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국민의식과 국가건설을 발전시킨다.; 과거청산 작업으로서 진실과 화해위원회 (TRC ;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식형성을 유도하는 훌륭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 국제관계의 이해를 발전시킨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국가와 국제사회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폭넓은 지식을 함양한다.
-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한다.

위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수업이 학생들이 특정 지방의 역사가 어떻게 지역의 역사, 국가의 역사, 세계의 역사와 연관을 이루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특정지방의 역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역사, 아프리카의 역사,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더 이상 분리되어 가르쳐서는 안 되며 통합된 방식으로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역사 교육의 통합된 접근방식은 학교에서 실현되어야 할 과제로서 역사의 참된 가치 즉, 학생들로 하여금 인간경험의 다양성과 인간사의 복잡성을 확실히 깨닫도록 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조화, 시각, 반성, 넓은 관점, 상이한 관점과 견해에 대한 포용력, 보다 넓고 깊은 차원의 자각을 가르칠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현재(now)"는 단지 시간이며 "여기(her)"는 단지 공간이라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좁은 시각은 설 자리를 잃게 할 것이다.

### 6.2.2 언어 정책

남아프리카공화국의 11개 공식언어 정책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중히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문제이지만, 예를 들어 단일 공식어로서 영어가 사용된다면 타 문화집단간에 적대감과 이질감을 해소하고 공통언어로서 국민적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11개의 공식어 정책을 똑같은 비중을 두고 실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며 또 화자수와 영향력에 따라 아프리카언어를 공식어로 지정하는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흑인들이 최대 화자수를 가지고 있는 줄루어도 지역적인 한계로 인해 단일공식어로 지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6.2.3 문화자각 운동

역사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경험이 왜곡된 결과,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모든 문화 집단은 모두를 하나로 묶는 올바른 국가의식보다는 배타적인 의식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안에서 촉진되는 조화라는 새로운 의식을 위한 새로운 범주와 새로운 모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5장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들은 그들의 주관적인 인종 의식 때문에 다른 문화 집단에 대하여 열등감, 또는 우월감을 가진다. 각각의 다른 문화 집단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문화행사를 정하여 장려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국가 의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신이 속한 문화집단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 자긍심은 다른 문화 집단을 존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상호이해가 존재할 때 국가는 강하고 건전한 국가의식을 형성할 것이며 국가건설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Alexander, N., "Core culture and core curriculum in South Africa", S. Jackson & J. Solis (eds.), *Beyond comfort zones in multiculturalism* (Westport, Bergin & Garvey, 1995).
- Bagby, P., *Culture and history: Prolegomena to the comparative study of*

- civilization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9).
- Baloyi, D.M., *The teacher as an educator within a particular culture* (unp. M.A. dissertation, Rand Afrikaans University, Johannesburg, 1996).
- Brehm, N.L., *The impact of South African culture on the management of people* (unp. M.A.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twatersrand, Johannesburg, 1994).
- Brightman, R.A., "Primitivism in Missinippi Cree historical consciousness", *Man*, vol. 25, no. 1, March 1990, pp. 108-128.
- Brock, C. & Tulasiewicz, W., "The concept of identity: Editors introduction", Brock, C. & Tulasiewicz, W. (eds.), *Cultural identity and educational policy* (London, Croom Helm Ltd, 1985).
- Collingwood, R.G., *The idea of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46).
- De Haas, M.E., "Whose reality?: Fundamental issues in mediation and negotiation in South Africa today", *Reality*, Vol. 20, 1988, pp. 26-30.
- Gibbs, L.W. & Stevenson, W.T. (eds.), *Myth and the crisis of historical consciousness* (Montana, Scholars Press, 1975).
- Hofstede, G., "Level of culture", Hofstede, G.,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Harper Collins, 1991).
- Kapp, P.H., *Standpunt oor geskiedenis en geskiedenisonderrig in die Suid-Afrikaanse samelewing* (ongep. Referaat, Geskiedeniskommissie van die Suid-Afrikaanse Akademie vir Wetenskap en Kuns, Pretoria, 9 February 1996).
- Kaye, H.J.,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storytelling: John Bergers fiction , *Mosaic*, vol. 16, no.4, 1983, pp. 43-57.
- Kekana, N.S., *African languages and the development of historical consciousness* (unp. Memorandum, Vista University, s.a.).
- Kekana, N.S., *Historical consciousness among the black people* (unp. Proposal, Vista University, s.a.).
- Kemp, A., *The estrangement of the past: A study in the origins of modern historical consciousne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Lukacs, J., *Historical consciousness or the remembered past*(New york, Schocken Books, 1988).
- Mallea, J.R., "Multicultural education: An alternative theoretical framework", Mcleod, K.A. (ed.), *Multicultural education: A partnership* (Toronto, Canadian Council for Multicultural and Intercultural



- Education(CCMIE), 1987).
- Marcum, J.A., *Education, race, and social change in South Afri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 Marcus, J.T., *Sub specie historiae: Essays in the manifestation of historical and moral consciousness*(Rutherford,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Press, 1980).
- Marcus, J.T., The consciousness of history , *Ethics*, vol. 73, no.1, October 1962, pp. 28-41.
- Pityana, N.B., *Beyond transition: The evolution of theological method in South Africa: A cultural approach* (unp.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pe Town, Cape Town, 1995).
- Rauche, G.A., The concept of history , *Historia*, vol, 35, no.1, May 1990, pp. 14-22.
- Rüsen, J., *Studies in metahistory* (Pretoria, Human Sciences Research Council, 1993).
- Schieder, T., The role of historical consciousness in political action , *History and Theory*, vol. 17, no. 4, 1978, pp.1-18.
- Segers, R.T., "Inventing a future for literary studies: Research and teaching on cultural identity", vol. 13, no. 3/4, 1977, *Journal of Literary Studies*, pp. 263-283.
- Segers, R.T., *Inventing a future for literary studies research and teaching on cultural identity* (unp. paper, Course on cultural identity, PU for CHE, 26 March 1998).
- Somniso, M.M., *The importance and relevance of cross-cultural communication in contemporary South Africa* (unp. M.A. dissertation, University of Port Elizabeth, Port Elizabeth, 1996).
- Steyn, H.S., *Praktiese statistiek vir die geesteswetenskappe* (Potchefstroom, Potchefstroomse Universiteit vir CHO, 1991).
- Tosh, J., *The pursuit of history: Aims, methods and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modern history* (London, Longman Group Limited, 1996).
- Tremaine, L., "Historical consciousness in Stepleton and Malraux", *Science-Fiction Studies*, vol. 11, July 1984, pp. 130-138.
- Weich, H.M., *Intercultural public relations as practised by an organization with employees from different cultural groups* (unp. M.A.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Africa, Pretoria, 1982).
- 김애리, *중학생의 역사의식 발달에 관한 연구* (unp, 석사학위 논문, 충북대학교, 청

주, 한국, 1993).

김정, “역사의식 발달에 대한 조사연구 - 초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광주교육대학 논문집*, 제 12 권, 1976, pp. 87-126.

이찬희, “역사의식의 개념과 역사교육”, *사회과 교육*, vol. 22, 8월 1989, pp. 307-316.

한상복외, *문화인류학개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